

타이완 미라주 전투기 60대 배치 완료

타이완은 26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처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도입한 미라주 2000-5 전투기 60대의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93년 주문한 이들 전투기는 북부 신주 공군기지에 배치됐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MICA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MAGIC II가 장착된 미라주전투기는 이달 초 8대가 마지막으로 인도됐으며 2개의 비행대대가 구성됐다.

이에 앞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2일 중국이 공군전력 향상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Su-30 전폭기를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러시아제 Su-27 전투기 4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Su-27 전투기 200대를 조립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궁 판딩 타이완 국방부 대변인은 타이완의 차세대 전투기들이 중국 전투기보다 우위에 있어 중국의 공군력은 아직 타이완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볼 때 최상의 공중 방어 시스템과 전방위 공격이 가능한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타이완의 공군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이완은 지난 92년 11월 38억 달러를 들여 MICA미사일 960기와 MAGIC II 미사일 480기를 구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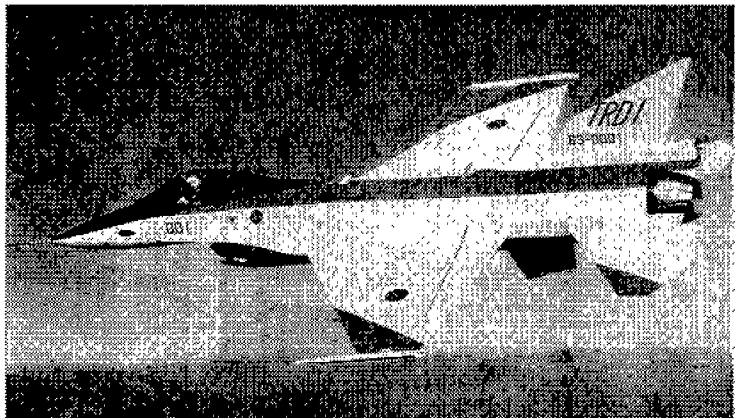
일본 XF-2 비행시험 지연

일본의 차세대전투기 F-2의 시제기인 XF-2의 비행시험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일본 TRDI (Technology Research Development Institute)에서 4대의 XF-2A/B에 대한 일련의 개조작업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높은 하중 상태에서의 급기동을 위한 날개 구조강화와 지난 비행시험에서 문제가 되었던 미사일 장착시의 날개 진동을 막기 위한 날개 밑 과일런의 재설계 및 위치 변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의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문제점은 비행이나 항공

기 성능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비와 운용의 편의성을 위한 개선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4대의 XF-2 모두 개조작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행시험은 전면 중단 상태이지만 TRDI의 관계자에 따르면 오래지 않아 비행시험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XF-2의 비행시험은 속도 마하 1.6까지와 +5g~-1g의 비행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었고 높은 받음각 시험 등 많은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비행시험이 완전히 종료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래 TRDI의 계획은 1999년 3월까지 900회의 비행시험을 실시하는 것이었으나 예기치 않았던 개조 작업으로 인해서 800회로 예상 비행시험횟수를 줄인 상태이지만 TRDI에서는 원래 예정했던 900회를 채우면서 1999년말까지



일본의 차세대전투기 F-2의 비행시험이 지연되고 있다

비행시험일정을 연장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군정찰위성 개발중... 2005년 발사목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오는 2005년 발사를 목표로 최신 전자 광학감시장비를 탑재하는 군용 정찰위성을 개발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배문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3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정부는 우주개발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다목적 인공위성 사업을 추진중이라며 군용 감시위성은 국방부에서 사용 목적에 맞도록 개발해 다목적 위성 본체에 탑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배 소장은 국방과학연구소는 다목적위성 본체에 탑재하기 위해 96년 3월부터 전자광학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프랑스에 연구원들을 파견해 체계설계 기술을 습득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이 군용 정찰위성 독자개발 사실에 대해 공식 확인하기는 처음이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군용 정찰위성은 6백80km 상공에서 북한 군사활동 및 지형 등의 정보를 수집하며, 오는 2005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중이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오는 2005

년 발사될 무궁화4호 위성에 군용 통신채널 1개를 확보, 군용 통신 위성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루이벌크 헬기에 미스트랄 장착

남아공의 데넬 에비에이션은 자사가 개발한 공격헬기인 루이벌크 헬기에 미스트랄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기로 마트라 BAe 다이내믹스와 합의했다. 지난 9월에 시작된 18개월짜리 이 프로그램은 계통 호환성 점검을 위한 비행시험을 시작으로 루이벌크 헬기의 헬멧 마운트 조준시스템과 미사일 발사 계통의 통합 및 발사 시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사일의 장착 형태는 날개 바깥쪽 파일런에 각각 2기씩 총 4기를 장착할 예정이다.

원래 지대공용으로 개발된 미스트랄의 공대공형은 성능을 인정받아 프랑스의 가젤 헬리콥터에서도 운용하고 있으며 유토프터 타이거

헬기에서도 사용할 예정이다.

록히드 마틴, 이스라엘에 신형 F-16 제의

록히드 마틴이 이스라엘에 장거리용 일체형 연료탱크와 능동형 위상배열레이더를 옵션으로 한 60대의 F-16 블록 50을 제안했다. 미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25억 달러에 달하는 이스라엘의 전투기 선정사업에 록히드 마틴의 F-16 블록50, 60대와 보잉의 F-15I 30대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최종 결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록히드 마틴은 F-16의 레이더로 이스라엘의 EL/M-2032레이더를 장착하려고 했으나 미 정부의 거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APG-68의 업그레이드형이나 UAE에서 발주한 F-16 블록 60에서 채용한 APG-68 애자일 빔 레이더를 제안하고 있다.



마트라 BAe의 미스트랄 미사일이 루이벌크헬기에 장착되었다